

일주문



전북경찰청 전의경 위문법회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5월 9일 김철주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전의경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전북경찰청 전의경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미얀마 구호기금 5000만원 보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5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미얀마 사이클론 재난 구호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3000만원 전달
해인사 주지 현웅 스님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천군의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서울상원사전사회
태고종 상원사 주지 법정 스님은 5월 23-25일 마북 프로젝트 삼장전(三藏殿) 부처님 진신사리(舍利子親)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02-833-0374-5)



불교진흥원,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강의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하버드대의과대학 로널드 시글(Ronald D. Siegel)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02-719-2606)



국회 정각선원 13주년 기념법회
국회 정각회 이혜봉 회장은 5월 23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정각선원 13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 초청법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각종 대전교도소 법요식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각종이 대전 교도소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5월 9일 진행된 법요식에는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 관음종 총무원 부원장 범명 스님, 전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혜명 정사,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의당 정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휴명 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걸림 없는 평등함이니 불교를 통해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손호선 기자

“禪을 통해 행복한 삶 풀어내자”

고우 스님 '선요' 강의 시작

“선(禪)을 왜 배우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처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겠지요. 선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이 구도열기에 휩싸인 5월 13일 오후 7시, 200여명의 사부대중 앞에 시대의 선지식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문수산 금봉암 주석)이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마련한 이날 강의는 2006년부터 시작한 간화선 대중화사업 '선지식 초청강좌'의 일환으로 열린 것. 불자들이 스스로 마음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선(禪)의 요체라 일컬어지며 참선수행자의 필독서로 널리 알려진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 선사(의 <선요(禪要)>를 고우 스님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사부대중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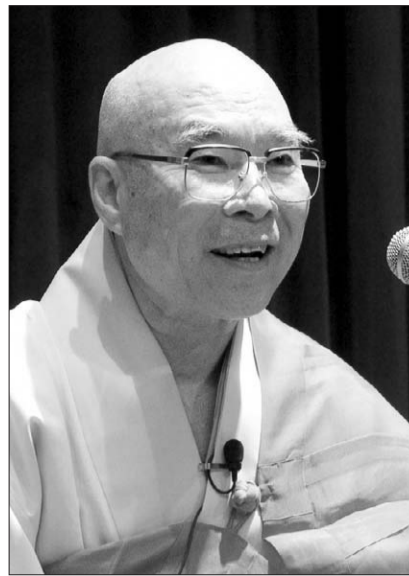
고우 스님은 이날 강의를 시작하며 “조계종의 수행방법인 ‘선’을 확고하게 우리나라에 도입한 태고보우 스님이 고봉 스님의 제자 석유

천공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며 고봉 스님과 조계종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는 <선요>의 서장(序章)적인 ‘고봉 화상선요서’ 강독과 설명, 선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주로 이뤄졌다. 스님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선(禪)’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선요>를 한 권의 책으로만 보지 말고 정신을 어떤 상태에 두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라”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다 <선요>의 가르침을 비춰보면 더 마음속 가까이 그 이야기가 느껴지고 우리 일상생활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시각이 바뀌고 본래시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 뒤고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에 본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 공부들 통해 바뀐 결과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고, 자유스럽게 만들어주는가, 여기 주목해 나가봅시다.”

또한 스님은 “요즘 정치인들의 인식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면서 “선을 배우면 한없이 평화로워지므로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고우 스님의 <선요> 강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선요>를 통해 보는 화두참구 방법, 화두참구에 필요한 3요소와 화두참구 과정 중 만나는 각종 병통, 향상사 등을 공부한다. (02-735-2429)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pia.com

“가족법회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다져야”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서 가족법회 시작한 미산 스님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가족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 주지 미산 스님이 5월 10일 가족법회 '8정도 법회'를 시작했다. 이날 법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는 가족법회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누구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이 가족법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불자 가족들 중 부모님은 열심히 사찰에 다니는데, 자녀들은 불교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야만 화목한 가정이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스님은 이번 가족법회로 부처님

의 사상을 각 세대에 맞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래서 가족법회 이름도 '8정도 법회'로 지었다. 불자들의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8정도를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강조함으로써 생활속 실천수행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8정도 법회'는 1부 가족법회 이후 어른과 어린이·청소년으로 나눠 가족별로 필요한 법회를 따로 본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인상적이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원어인 교사를 초청, 법회 후 영어 교실을 연다. 또 청소년은 학습 클리닉을 신청해, 성적 향상 프로그램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스님은 이후 한자교실 등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시범 운영을 통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스님은 가족법회를 위해 어린이 법당까지 마련했다. 조각가 오재현씨가 조성한 천진불을 모시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색깔로 법당을 꾸렸다.

“기존의식보다는 정서에 맞게 법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법당을 친근하게 꾸며 사찰에 오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법회의 성패 여부는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달려있다.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찰에서 어떻게 가족간의 화합을 논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린이청소년법회가 이렇게 침체돼 있지 않았습니

다시 소생시키려면 종단과 불교계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도선원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제2회 서울시 전통예술인상 수상

김의정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제2회 서울시 전통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14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상금은 500만원. 김 회장은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명원문화재단 다도문화원을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강진 기자



천문사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



수락산 천문사(주지 진성)는 5월 3일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3년 여의 불사를 원만 회향한 천문사는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낙성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으며, 법폐의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02-936-9736)

전북지역불교 연합합창제 개최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전북지역 불교 연합합창제가 5월 7일, 전북에 술화관에서 개최됐다. 전북불교회관 '비리암'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익산 가톨릭가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진안 대전교구심인합창단 등이 참여한 이날 전북연합합창제는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을 환희심에 빠지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임실 탄약창 호국 장영사 봉축법회 봉행



전북 임실 탄약창(창장 박정길 대령) 호국 장영사는 5월 4일 금산사 원행 스님과 전북교사단 포교사, 불자 장영사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다. 원행 스님은 “대승보살도를 실천해 전우를 배려한다면 평생 함께 할 도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천사 윤장대 점안식



5월 9일 화순 학천사(주지 지명)에서는 부처님 경전을 담아 돌리며 기도 올리는 윤장대 점안식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광주전남총무원장 금명 스님, 담양 용화사수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재)한 중 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종정 성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입종 구비서류

- (1)입종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1통 (3) 호적초본 1통 (4)여권용 사진 4매 (5)승려증빙서류 (진 종단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6)사찰전경사진 (내외)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Courses include Basic Course (37 weeks), Intermediate Course (37 weeks), Practice Class (1 year), and Specialized Course (1 year).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